

김이탁 제1차관, 폴란드와 스마트시티·PPP 협력 강화 논의

- WSCE 계기로 8일 폴란드 기금지역정책부 차관 면담… MOU 기반 실질협력 논의

-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9월 8일 오후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야첵 카르노브스키(Jacek Karnowski) 폴란드 기금지역정책부 차관을 만나 스마트시티와 민관협력사업(PPP)*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.

* (Public-Private Partnership) 공공-민간 간 계약을 통해 공동수행하는 공공인프라 사업

- 이번 면담은 카르노브스키 차관의 「2026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(WSCE 2026)*」 참석을 계기로 마련되었으며, 양측은 지난해 5월에 체결한 ‘한-폴란드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 업무협약(MOU)’ 이후의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.

* (9.9~11, 부산) 올해 10주년을 맞는 국토부 주최 아태지역 최대 규모 스마트시티 행사

- 양국은 MOU를 기반으로 K-City 네트워크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* 등을 통해 스마트시티 정책·기술 교류와 협력사업 발굴을 이어오고 있으며, 올해는 폴란드 루블린 시(市)와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을 함께 수립 중이다.

* 정부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해외도시에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 지원

- 카르노브스키 차관은 “스마트시티와 인프라 개발에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PPP 사업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”며, 양국 간 해당 분야 협력 확대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.

- 김 차관은 “올해 루블린 K-City 네트워크 협력사업과 WSCE를 통한 정책 교류 등으로 양국의 스마트시티 협력이 구체화되고 있다”면서,

- “K-City 네트워크 협력사업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, PPP 분야에서도 양국 간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사업을 함께 발굴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국토도시실 도시경제과	책임자	과 장	윤종수 (044-201-3458)
		담당자	사무관	이지형 (044-201-4097)



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
MOVE : TOMORROW